

이 殷盛스런 한바탕 신명의 책잔치

'91서울도서전을 둘러보며



한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책의 첫장을 펼쳐보는 것은 언제나 선물을 풀어보는 것처럼 마음을 설레게 한다. 깨알같이 박혀 있는 활자들이 내게 들려줄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서점에서 골라 산 한권의 책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언제나 기대감으로 조금하다.

청명하게 푸르른 가을의 주말 오후, '91서울도서전이 열리는 올림픽공원의 제1경기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좋은 벗을 만나러 가듯 기대와 즐거움으로 또 그렇게 설레었다. 게다가 20만 명의 벗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매라! 사람들이 외곽대는 구경 거리는 일부러라도 멀찍이 피해가곤 하는 평소의 소신을 저버리고 이렇듯 걸음을 재촉하는 것은 순전히 그곳에 언제나 나의 벗이었던 책들이 있기 때문이다.

제1경기장은 벌써 바깥 입구부터 대단히 붐비고 있었다. 아동도서 출판사에서 기념으로 나누어주는 기념품을 받기 위해 늘어서 있는 꼬미들, 식구들과 나들이 겸해서 나온 어른들로 한바탕 소란하다. 그러나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 넓은 공간에 들어서 전시대들과 이리저리 둘러다니는 인파로 잠시 정신이 얼얼해져버리고 만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지만 놀러다니기 또한 더없이 좋은 황금 같은 주말의 오후, 책을 만나기 위해 이 넓은 공간을 메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확실히 즐거운 일이다.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은 반쯤 내려가지 않으면서 따라 나섰다손 치더라도 저쪽들끼리 둘러다니는 이 많은 아이들은 다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전자오락과 텔레비전 대신 책에서 재미를 찾으려는 모습이 기록해 공짜 기념품을 얻기 위해 소란을 떠는 모습들은 눈감아줄 만하다.

전시회 주최측의 안내책자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 참여한 출판사는 1천5백40군데. 그밖에 도서상품권 홍보관, ISBN(국제 표준도서번호), POS(판매시점정보관리) 홍보관도 설치되어 있다. 얼핏알핏 전시대를 지나치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명저자 99명의 유필 원고전'이었다. 문단과 학계에서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이들의 유필은 언제나 그분들을 직접 만나는 듯한 느낌에 빠지게 한다. 김달진, 정지용의 목필은 단아한 묵향 같은 그분들의 체취를 느끼게 하고, 동요 '반달'의 가사와 악보를 한 지 위에 적은 윤극영의 글씨는 사뭇 정겹다. 건너편 전시대에서 크게 틀어 놓은 경음악이 북새통을 이루는 외중에도 가만히 속으로 악보를 따라가며 '반달'을 불러본다.

나의 관심을 끈 또하나의 전시는 '세계 어린이 공책 전시회'였다. 우리나라 어린이 공책이 대부분 수입 필요로 만들기 때문에 지나치게 호화스럽고 자연파괴에도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실이다. 과연 전시되어 있는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어린이 공책은 재생필프로 만들어져 검소하고 그 자체가 교육적으로 보이기조차 하다.

그밖에 '독자가 뽑은 베스트 시인 잔치', '아버지가 쓰고 그린 그림책과 원화전'도 흥미롭고 '중국의 조선족을 위한 교과서 전'도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 충분하다. 연변 동북조선민족교육 출판사가 펴낸 교과서들은 마치 국민학교 시절의 그것을 다시 만난 기분은 느끼게 할 정도로 소박하지만, 역사교과서를 펼치니 사회주의 국가답게 파리코윈의 투쟁 장면을 그린 그림이 첫장을 장식하고 있다.

이런 각종 전시들은 자칫 무미건조해지기 쉬운 전시장에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책의 문화적 의미를 폭넓게 생

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호뭇함을 느끼게 했다. 기획도 비교적 충실하고 아이디어도 새로와 성인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 만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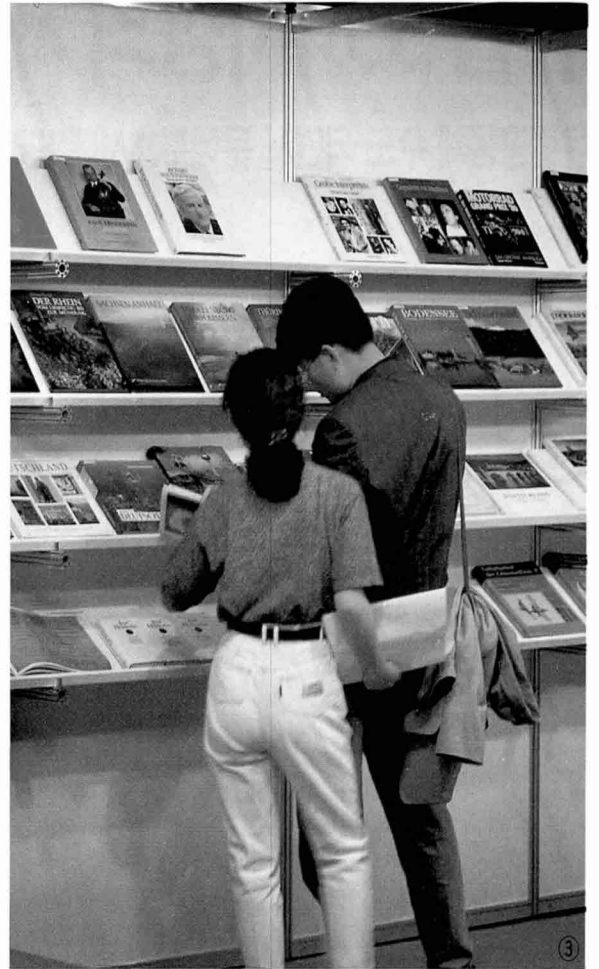
그러나 출판사들의 도서전시대는 기대가 컸던만큼 실망도 그에 못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 많은 책의 바다 속에서 왠지 다양함을 느끼기 힘들었던 것은 내만의 감상이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작지만 개성있는 출판사들의 참여를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아동도서 쪽으로 치우친 듯한 전시대의 배치와 화려한 장식들도 또다른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책의 중요성을 폄하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책이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님을 일깨우기 위해 멀티비전, 신나는 음악, 색색의 장식물로 흥을 돋군 것까지는 좋았지만 어수선한 분위기로 인해 이번 기회에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골라보려는 성인들에게는 피로감만을 느끼게 하지 않았을까 우려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5, 6년 전 옛 서울고등학교 자리와 여의도에서 열렸던 도서전이 한결 여유로웠고 분위기도 진지했던 것으로 기억되지만,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청소년과 장년층 모두를 책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도서전의 기획과 운영방법 하나하나가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도서전에 사람들이 북적인다는 사실 하나에만 감지덕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만 권의 책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곳에서 찾을 수 없었던 책 한권을 동네 어귀의 책방에서 샀다. 이번 도서전의 캐치프레이즈인 "한 권의 감동"과 "한 권의 흥분"을 기대하면서.

오애리「세계와 나」 기자



- ① 91서울 도서전이 치러진 행사장 전경.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1천5백여 출판사가 20만종의 도서를 선보인 가운데 모두 30만5천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큰 성황을 이루었다.
- ② 특별기획전의 하나로 마련된 '명저자들의 육필원고전' 최남선, 이광수, 정지용, 박목월, 이효석 등 작고문인 99명의 육필원고가 전시됐다. 노영환, 박소리, 황순구씨 등이 소장지료를 제공했다.
- ③ 주한 외국문화원의 참여로 마련된 '외국우수도서초대전'. 세계 주요국가의 최신 출판물을 초청 전시하여 학술동향과 출판의 최근경향을 알 수 있도록 꾸며졌다.
- ④ 아동도서 출판사가 구입 학습컴퓨터 코너. 컴퓨터 디스켓을 통한 학습지 구독의 한 예를 보여준다.
- ⑤ '아버지가 쓰고 그린 그림책과 원화전'. 지난해 '엄마가 쓰고 그린 그림책과 원화전'에 이은 기획으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⑥ 단체관람을 나온 유치원생들. 재미있게 꾸여진 전시대 안에서 책을 펼쳐보고 있다.

